**끼따기리경**

(Kīṭāgiri suttaṃ -Advice given at Kitagiri -끼따기리 설법의 경, 맛지마니까야 M70, 전재성님역)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 때 세존께서 까씨 국에서 많은 수행승의 무리와 함께 유행하고 계셨다.

2. 그 때 세존께서는 많은 수행승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나는 밤에 음식을 먹지 않는다. 밤에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병이 없고 건강하고 상쾌하고 힘이 있고 안온한 삶을 즐긴다. 수행승들이여, 오라. 여기 그대들도 밤에 음식을 먹지 않길 바란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도 밤에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병이 없고 건강하고 상쾌하고 힘이 있고 안온한 삶을 즐기기 바란다.”

“세존이시여, 알겠습니다.”

그들 수행승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3. 그리고 세존께서는 까씨 국을 점차로 유행하면서 끼따기리라는 까씨 국의 마을에 도착했다. 그 때에 앗싸지와 뿌납바쑤까라는 이름의 두 명의 수행승들이 끼따기리에 살고 있었다. 이때에 많은 수행승들이 앗싸지와 뿌납바쑤까라는 이름의 두 명의 수행들이 살고 있는 곳을 찾았다. 다가가서 앗싸지와 뿌납바쑤까라는 이름의 두 명의 수행승들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벗들이여, 세존뿐만 아니라 수행승들은 밤에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밤에 음식을 먹지 않아서 병이 없고 건강하고 상쾌하고 힘이 있고 안온한 삶을 즐깁니다. 벗들이여, 오십시오. 여기 그대들도 밤에 음식을 먹지 않길 바랍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도 밤에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병이 없고 건강하고 상쾌하고 힘이 있고 안온한 것을 즐기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말하자 앗싸지와 뿌납바쑤까라는 이름의 두 명의 수행승들은 그들 수행승들에게 말했다.

“벗들이여, 우리들은 저녁, 아침, 그리고 낮 동안 때 아닌 때에 식사를 합니다. 저녁, 아침, 그리고 낮 동안 때 아닌 때에 식사를 해도 병이 없고 건강하고 상쾌하고 힘이 있고 안온한 삶을 즐깁니다. 왜 우리들이 여기 눈에 보이는 이익을 버리고 미래의 것을 추구합니까? 벗들이여, 우리들은 저녁, 아침, 그리고 낮 동안 때 아닌 때에 식사를 할 것입니다.”

4. 그들 수행승들은 앗싸지와 뿌납바쑤까라는 이름의 두 명의 수행승들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았다. 가까이 다가가서 세존께 인사를 하고 한 쪽으로 물러앉았다. 한 쪽으로 물러앉아 그들 수행승들은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앗싸지와 뿌납바쑤까라는 이름의 두 명의 수행들이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앗싸지와 뿌납바쑤까라는 이름의 두 명의 수행들에게 말했습니다. ‘벗들이여, 세존뿐만 아니라 수행승들은 밤에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밤에 음식을 먹지 않아서 병이 없고 건강하고 상쾌하고 힘이 있고 안온한 것을 즐깁니다. 벗들이여, 그대들도 밤에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병이 없고 건강하고 상쾌하고 힘이 있고 안온한 것을 즐기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말하자 앗싸지와 뿌납바쑤까라는 이름의 두 명의 수행승들은 우리들에게 말했습니다. ‘벗들이여, 우리들은 저녁, 아침, 그리고 낮 동안 때 아닌 때에 식사를 합니다. 저녁, 아침, 그리고 낮 동안 때 아닌 때에 식사를 해도 병이 없고 건강하고 상쾌하고 힘이 있고 안온한 것을 즐깁니다. 왜 우리들이 여기 눈에 보이는 이익을 버리고 미래의 것을 추구합니까? 벗들이여, 우리들은 저녁, 아침, 그리고 낮 동안 때 아닌 때에 식사를 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앗싸지와 뿌납바쑤까라는 이름의 두 명의 수행승들을 설득할 수가 없어서 여기 저희들은 그 사실을 세존께 알립니다.

5. 그러자 세존께서는 한 수행승에게 말씀하셨다.

“수행승이여, 그대는 나의 이름으로 앗싸지와 뿌납바쑤까라는 이름의 두 명의 수행승들에게 ‘스승께서 존자들을 부르신다.’라고 알리라.”

“세존이시여, 알겠습니다.”

그 수행승은 세존께 대답하고 앗싸지와 뿌납바쑤까라는 이름의 두 명의 수행승들이 있는 곳을 찾았다. 가까이 다가가서 앗싸지와 뿌납바쑤까라는 이름의 두 명의 수행승들에게 ‘스승께서 존자들을 부르신다.’라고 알렸다.

“벗이여, 알겠습니다.”

6. 앗싸지와 뿌납바쑤까라는 이름의 두 명의 수행승들은 그 수행승에게 대답하고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았다. 가까이 다가가서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한 쪽으로 물러앉았다. 한 쪽으로 물러앉은 앗싸지와 뿌납바쑤까라는 이름의 두 명의 수행승들에게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많은 수행승들이 그대들을 찾아서 이와 같이 ‘벗들이여, 세존뿐만 아니라 수행승들은 밤에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밤에 음식을 먹지 않아서 병이 없고 건강하고 상쾌하고 힘이 있고 안온한 것을 즐깁니다. 벗들이여, 그대들도 밤에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병이 없고 건강하고 상쾌하고 힘이 있고 안온한 것을 즐기기 바랍니다.’라고 말한 것이 사실인가? 이와 같이 말하자 그대들은 그들 수행승들에게 이와 같이 ‘벗들이여, 우리들은 저녁, 아침, 그리고 낮 동안 때 아닌 때에 식사를 합니다. 저녁, 아침, 그리고 낮 동안 때 아닌 때에 식사를 해도 병이 없고 건강하고 상쾌하고 힘이 있고 안온한 것을 즐깁니다. 왜 우리들이 여기 눈에 보이는 이익을 버리고 미래의 것을 추구합니까? 벗들이여, 우리들은 저녁, 아침, 그리고 낮 동안 때 아닌 때에 식사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는가?”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7.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내가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참사람은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어떠한 종류의 느낌을 체험하든지 그에게 해로운 것은 감소하고 유익한 것은 늘어난다.’라고 이치를 가르친 것을 아는가?”

“세존이시여, 알지 못합니다.”

8.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내가 이와 같이 이치를 가르침 것을 알지 못하는가?

1)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종류의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 그에게 악하고 불건전한 것은 늘어나는 반면, 착하고 건전한 것은 줄어든다.

2)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종류의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 그에게 악하고 불건전한 것은 줄어드는 반면, 착하고 건전한 것은 늘어난다.

3)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종류의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 그에게 악하고 불건전한 것은 늘어나는 반면, 착하고 건전한 것은 줄어든다.

4)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종류의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 그에게 악하고 불건전한 것은 줄어드는 반면, 착하고 건전한 것은 늘어난다.

5)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종류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 그에게 악하고 불건전한 것은 늘어나는 반면, 착하고 건전한 것은 줄어든다.

6)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종류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 그에게 악하고 불건전한 것은 줄어드는 반면, 착하고 건전한 것은 늘어난다.’라고.

“세존이시여, 알고 있습니다.”

9. “수행승들이여, 훌륭하다. 수행승들이여,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종류의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 그에게 해로운 것은 늘어나는 반면 유익한 것은 줄어든다.’라는 것을 지혜로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실현하지 못하고, 감촉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종류의 즐거운 느낌을 버려라.’고 말한다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온당한 일인가?”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종류의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 그에게 해로운 것은 늘어나는 반면 유익한 것은 줄어든다.’라는 것을 지혜로서 알고, 보고, 깨닫고, 실현하고, 감촉하고 ‘이와 같은 종류의 즐거운 느낌을 버려라.’고 나는 말한다.”

10. “수행승들이여,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종류의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 그에게 해로운 것은 줄어드는 반면, 유익한 것은 늘어난다.’라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혜로써 접촉하지 못하면서, 그와 같이 알지 못하는 내가 ‘이와 같은 종류의 즐거운 느낌을 성취하라.’고 말한다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온당한 일인가?”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종류의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 그에게 악하고 불건전한 것은 줄어드는 반면, 착하고 건전한 것은 늘어난다.’라고 알고, 보고, 깨닫고, 지혜로써 접촉하여, 그와 같이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종류의 즐거운 느낌을 성취하라.’고 나는 말한다.”

11. “수행승들이여,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종류의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 그에게 악하고 불건전한 것은 늘어나는 반면, 착하고 건전한 것은 줄어든다.’라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혜로써 접촉하지 못하면서, 그와 같이 알지 못하는 내가 ‘이와 같은 종류의 괴로운 느낌을 버려라.’고 말한다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온당한 일인가?”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종류의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 그에게 악하고 불건전한 것은 늘어나는 반면, 착하고 건전한 것은 줄어든다.’라고 알고, 보고, 깨닫고, 지혜로써 접촉하여, 그와 같이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종류의 괴로운 느낌을 버려라.’고 나는 말한다.”

12. “수행승들이여,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종류의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 그에게 악하고 불건전한 것은 줄어드는 반면, 착하고 건전한 것은 늘어난다.’라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혜로써 접촉하지 못하면서, 그와 같이 알지 못하는 내가 ‘이와 같은 종류의 괴로운 느낌을 성취하라.’고 말한다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온당한 일인가?”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종류의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 그에게 악하고 불건전한 것은 줄어드는 반면, 착하고 건전한 것은 늘어난다.’라고 알고, 보고, 깨닫고, 지혜로써 접촉하여, 그와 같이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종류의 괴로운 느낌을 성취하라.’고 나는 말한다.”

13. “수행승들이여,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종류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 그에게 악하고 불건전한 것은 늘어나는 반면, 착하고 건전한 것은 줄어든다.’라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혜로써 접촉하지 못하면서, 그와 같이 알지 못하는 내가 ‘이와 같은 종류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버려라.’고 말한다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온당한 일인가?”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종류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 그에게 악하고 불건전한 것은 늘어나는 반면, 착하고 건전한 것은 줄어든다.’라고 알고, 보고, 깨닫고, 지혜로써 접촉하여, 그와 같이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종류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버려라.’고 나는 말한다.”

14. “수행승들이여,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종류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 그에게 악하고 불건전한 것은 줄어드는 반면, 착하고 건전한 것은 늘어난다.’라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혜로써 접촉하지 못하면서, 그와 같이 알지 못하는 내가 ‘이와 같은 종류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성취하라.’고 말한다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온당한 일인가?”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종류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 그에게 악하고 불건전한 것은 줄어드는 반면, 착하고 건전한 것은 늘어난다.’라고 알고, 보고, 깨닫고, 지혜로써 접촉하여, 그와 같이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종류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성취하라.’고 나는 말한다.”(이런데에서 중도가 나오는 것-기준이 선법 불선법이기에, 진정한 고행이란 탐진치를 버리는 것, 의도-선종에서 이것을 잡아서 설명)

15. 수행승들이여, 나는 모든 경우에 비구들에게 ‘방일하지 않음으로써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또한 모든 경우에 비구들에게 ‘방일하지 않음으로써 해야 할 일이 없다.’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수행승들이여, 무릇 수행승으로서 거룩한 이 이고 모든 번뇌를 부수고 수행이 완성되고 해야 할 일을 해 마치고, 짐을 버리고, 참다운 목표에 도달하고, 존재의 결박을 끊고, 올바른 지혜로 해탈한 자가 있는데, 수행승들이여, 그러한 수행승들에게 나는 ‘방일하지 않음으로써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설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들에게는 이미 방일하지 않음으로써 해야 할 일이 성취되었고 그들은 더 이상 방일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16. 수행승들이여, 무릇 아직 배우는 유학(有學)의 수행승으로서 마음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멍에에서 벗어난 안온을 갈망하는 자가 있는데, 수행승들이여, 그러한 수행승들에게 나는 ‘방일하지 않음으로써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설한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들 존자들은 적당한 깔개를 사용하고 좋은 벗을 사귀고 감각능력을 다스리고 훌륭한 가문의 아들이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목적인 최상의 청정한 삶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곧바로 알고 스스로 깨닫고 성취하길 바라는 까닭에, 수행승들이여, 이들 수행승들이 방일하지 않고 성취해야 할 경지를 보고 ‘방일하지 않음으로써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나는 설한다.

17. 수행승들이여, 세상에는 일곱 종류의 참사람이 있다. 일곱 종류란 어떠한 것인가?

‘양변으로 해탈한 자, 지혜로 해탈한 자, 몸으로 깨달은 자, 견해를 성취한 자, 믿음에 의해 해탈한 자, 가르침에 따르는 자, 믿음에 따르는 자’이다.

18. 수행승들이여, 양변으로 해탈한 사람이란 어떠한 자인가?

수행승들이여, 여기 어떤 참사람이 물질과 비물질을 뛰어넘고 해탈을 몸으로 체험하고 지혜로써 보아 모든 번뇌를 부수면, 수행승들이여, 이 참사람을 양변으로 해탈한 자라고 부른다. 수행승들이여, 나는 이러한 수행승들에게 ‘방일하지 않음으로써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설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이미 방일하지 않음으로써 해야 할 일이 성취되었고 그들은 더 이상 방일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19. 수행승들이여, 지혜에 의해 해탈한 사람이란 어떠한 자인가? 수행승들이여, 여기 어떤 참사람이 물질과 비물질에서 벗어나 해탈을 몸으로 체험하지 않았으나 지혜로써 보아 모든 번뇌를 부수면, 수행승들이여, 이 참사람을 지혜에 의해 해탈한 자라고 부른다. 수행승들이여, 나는 이러한 수행승들에게 ‘방일하지 않음으로써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설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이미 방일하지 않음으로써 해야 할 일이 성취되었고 그들은 더 이상 방일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20. 수행승들이여, 몸으로 깨달은 사람이란 어떠한 자인가? 수행승들이여, 여기 어떤 참사람이 물질과 비물질에서 벗어나 해탈을 자신의 몸으로 체험하고 지혜로써 보아 번뇌의 일부를 부수면, 수행승들이여, 이 참사람을 몸으로 깨달은 자라고 부른다. 수행승들이여, 나는 이러한 수행승들에게 ‘방일하지 않음으로써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설한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들 존자들은 적당한 깔개를 사용하고 좋은 벗을 사귀고 감각능력을 다스리고 훌륭한 가문의 아들이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목적인 최상의 청정한 삶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곧바로 알고 스스로 깨닫고 성취하길 바라는 까닭에, 수행승들이여, 이들 수행승들이 방일하지 않고 성취해야 할 경지를 보고 그들에게 ‘방일하지 않음으로써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나는 설한다.

21. 수행승들이여, 견해를 성취한 사람이란 어떠한 자인가? 수행승들이여, 여기 어떤 참사람이 형상을 뛰어넘고 물질에서 벗어나 고요한 해탈을 자신의 몸으로 체험하지 못하였으나 지혜로써 보아 번뇌의 일부를 부수고 또한 그에게 여래의 가르침이 잘 이해되고 잘 관통되면, 수행승들이여, 이 참사람을 견해를 성취한 자라고 부른다. 수행승들이여, 나는 이러한 수행승들에게 ‘방일하지 않음으로써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설한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들 존자들은 적당한 깔개를 사용하고 좋은 벗을 사귀고 감각능력을 다스리고 훌륭한 가문의 아들이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목적인 최상의 청정한 삶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곧바로 알고 스스로 깨닫고 성취하길 바라는 까닭에, 수행승들이여, 이들 수행승들이 방일하지 않고 성취해야 할 경지를 보고 그들에게 ‘방일하지 않음으로써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나는 설한다.

22. 수행승들이여, 믿음으로 해탈한 사람이란 어떠한 자인가? 수행승들이여, 여기 어떤 참사람이 물질과 비물질에서 벗어나 해탈을 자신의 몸으로 체험하지 못하였으나 지혜로써 보아 번뇌의 일부를 부수고 또한 그에게 여래에 대한 확고하고(patiṭṭhitā) 근거 있는(mūlajātā) 믿음이 굳건하게(niviṭṭhā) 되면, 수행승들이여, 이 참사람을 믿음으로 해탈한 자라고 부른다. 수행승들이여, 나는 이러한 수행승들에게 ‘방일하지 않음으로써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설한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들 존자들은 적당한 깔개를 사용하고 좋은 벗을 사귀고 감각능력을 다스리고 훌륭한 가문의 아들이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목적인 최상의 청정한 삶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곧바로 알고 스스로 깨닫고 성취하길 바라는 까닭에, 수행승들이여, 이들 수행승들이 방일하지 않고 성취해야 할 경지를 보고 그들에게 ‘방일하지 않음으로써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나는 설한다.

23. 수행승들이여,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란 어떠한 자인가? 수행승들이여, 여기 어떤 참사람이 형상을 뛰어넘고 물질에서 벗어나 고요한 해탈을 자신의 몸으로 체험하지 못하였고 또한 지혜로써 보아 번뇌의 일부를 아직 부수지 못하였으나, 여래가 선언한 가르침을 어느정도(mattaso)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나아가서 믿음의 능력, 정진의 능력, 새김의 능력, 집중의 능력, 지혜의 능력과 같은 법들을 갖추었다면, 수행승들이여, 이 참사람을 가르침을 따르는 자라고 부른다. 수행승들이여, 나는 이러한 수행승들에게 ‘방일하지 않음으로써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설한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들 존자들은 적당한 깔개를 사용하고 좋은 벗을 사귀고 감각능력을 다스리고 훌륭한 가문의 아들이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목적인 최상의 청정한 삶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곧바로 알고 스스로 깨닫고 성취하길 바라는 까닭에, 수행승들이여, 이들 수행승들이 방일하지 않고 성취해야 할 경지를 보고 그들에게 ‘방일하지 않음으로써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나는 설한다.

24. 수행승들이여, 믿음을 따르는 사람이란 어떠한 자인가? 수행승들이여, 여기 어떤 참사람이 형상을 뛰어넘고 물질에서 벗어나 고요한 해탈을 자신의 몸으로 체험하지 못하였고 또한 지혜로써 보아 모든 번뇌를 아직 부수지 못했으나, 여래에 대한 믿음이 있는 만큼 그리고 사랑이 있는 만큼 또한 나아가서 믿음의 능력, 정진의 능력, 새김의 능력, 집중의 능력, 지혜의 능력과 같은 법들을 갖추었다면, 수행승들이여, 이 참사람을 믿음을 따르는 자라고 부른다. 수행승들이여, 나는 이러한 수행승들에게 ‘방일하지 않음으로써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설한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들 존자들은 적당한 깔개를 사용하고 좋은 벗을 사귀고 감각능력을 다스리고 훌륭한 가문의 아들이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목적인 최상의 청정한 삶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곧바로 알고 스스로 깨닫고 성취하길 바라는 까닭에, 수행승들이여, 이들 수행승들이 방일하지 않고 성취해야 할 경지를 보고 그들에게 ‘방일하지 않음으로써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나는 설한다.

25. 수행승들이여, 나는 최상의 지혜가 단번에 성취된다고 설하지 않는다.

수행승들이여, 그와 반대로 오로지 점차적으로 배우고 점차적으로 닦고 점차적으로 발전한 다음에 지혜의 성취가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수행승들이여, 어떻게 오로지 점차적으로 배우고 점차적으로 닦고 점차적으로 발전한 다음에 지혜의 성취가 이루어지는가?

26. 수행승들이여, 여기 어떤이가 (스승에게) 믿음이 생기면, 그는 가까이 간다. 가까이 가서 스승을 공경한다. 스승을 공경할 때에 스승에게 귀를 기울인다. 귀를 기울일 때에 그에게서 가르침을 듣는다. 가르침을 들을 때에 그것을 기억한다. 기억할 때에 가르침의 의미를 규명한다. 의미를 규명할 때에 가르침을 성찰하여 수용한다. 가르침을 성찰하여 수용할 때에 의욕이 생겨난다. 의욕이 생겨날 때에 의지를 굳힌다. 의지를 굳힐 때에 그것을 깊이 새긴다. 깊이 새길 때에 정진한다. 정진할 때에 몸으로 최상의 진리를 성취하고 지혜로써 꿰뚫어 본다.

27. 수행승들이여, 여기 어떤 자에게 스승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수행승들이여, 참으로 그 가까이 감이 없고, 수행승들이여, 참으로 공경함이 없고, 수행승들이여, 참으로 귀를 기울임이 없고, 수행승들이여, 참으로 가르침을 들음이 없고, 수행승들이여, 참으로 기억함이 없고, 수행승들이여, 참으로 가르침의 의미를 규명함이 없고, 수행승들이여, 참으로 가르침을 통찰하여 수용함이 없고, 수행승들이여, 참으로 의욕이 생겨남이 없고, 수행승들이여, 참으로 의지를 굳힘이 없고, 수행승들이여, 참으로 깊이 새김이 없고, 수행승들이여, 참으로 정진함이 없다.

28. 수행승들이여, 참으로 그들은 길을 잃었고, 수행승들이여, 참으로 그들은 삿된 길에 빠졌다. 수행승들이여, 그 어리석은 자들은, 가르침과 계율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있는가?

29. “세존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우리는 누구입니까? 가르침을 이해해야 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수행승들이여, 아무리 물질적인 것들을 중요시하고, 물질적인 것들을 상속자로 하고, 물질적인 것들을 벗으로 하는 스승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이와 같이 ‘우리가 이것을 얻는다면, 이것을 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얻지 못한다면, 이것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 하물며, 궁극적으로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완전히 떠난 여래에게 있어서랴 ?

30. 수행승들이여, ①스승의 가르침을 알려고 열망하는 믿음 있는 제자라면, 그는 이와 같이 ‘세존은 스승이고 나는 제자이다. 세존은 알지만,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실천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31. 수행승들이여, ②스승의 가르침을 알려고 열망하는 믿음 있는 제자라면, 스승의 가르침은 그에게 자양을 주고 스승의 가르침은 그에게 활기를 준다.

32. 수행승들이여, ③스승의 가르침을 알려고 열망하는 믿음 있는 제자라면, 그는 이와 같이 ‘기꺼이 내 몸에서 나의 가죽, 힘줄, 뼈만 남아도 좋다. 살과 피는 말라버려라. 그러나 참사람의 인내, 참사람의 정진, 참사람의 용맹으로써 성취해야 할 것을 성취하지 못하는 한, 나의 정진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실천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33. 수행승들이여, ④스승의 가르침을 알려고 열망하는 믿음 있는 제자라면, 그는 두 가지의 경지 가운데 어느 하나의 경지를 얻을 것이다. 즉, 현세에서 궁극적인 지혜의 경지를 얻거나, 만약 집착이 남아있다면, 아나함의 경지를 얻을 것이다.

34.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들 수행승들은 만족하여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Suttantapiṭake
Majjhimanikāyo
Majjhimapaṇṇāsako
2. Bhikkhuvaggo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sambuddhassa.
2.2.10
70 Kīṭāgiri suttaṃ

Evaṃ me sutaṃ ekaṃ samayaṃ bhagavā kāsīsu cārikaṃ carati mahatā bhikkhusaṅghena saddhiṃ. Tatra kho bhagavā bhikkhū āmantesi: ahaṃ kho bhikkhave aññatreva rattibhojanā bhuñjāmi, aññatra kho panāhaṃ bhikkhave rattibhojanā bhuñjamāno appābādhatañca sañjānāmi appātaṅkatañca lahuṭṭhānañca balañca phāsuvihārañca. Etha tumhepi bhikkhave aññatreva rattibhojanā bhuñjatha, aññatra kho pana bhikkhave tumhepi rattibhojanā bhuñjamānā appābādhatañca sañjānissatha appātaṅkatañca lahuṭṭhānañca balañca pāsuvihārañcā'ti. Evambhanteti kho te bhikkhū bhagavato paccassosuṃ. Atha kho bhagavā kāsīsu anupubbena cārikaṃ caramāno yena kīṭāgiri nāma kāsīnaṃ nigamo tadavasari. Tatra sudaṃ bhagavā kīṭāgirismiṃ viharati kāsīnaṃ nigame.

Tena kho pana samayena assajipunabbasukā nāma bhikkhū kīṭāgirismiṃ āvāsikā honti. Atha kho sambahulā bhikkhū yena assajipunabbasukā bhikkhū tenupasaṅkamiṃsu. Upasaṅkamitvā assajipunabbasuke bhikkhū etadavocuṃ: bhagavā kho āvuso aññatreva rattibhojanā bhuñjati bhikkhu saṅgho ca, aññatra kho panāvuso rattibhojanā bhuñjamānā appābādhatañca sañjānanti appātaṅkatañca lahuṭṭhānañca balañca phāsuvihārañca. Etha tumhepi āvuso aññatreva rattibhojanā bhuñjatha, aññatra kho panāvuso tumhepi rattibhojanā bhuñjamānā appābādhatañca sañjānissatha, appātaṅkatañca lahuṭṭhānañca balañca phāsuvihārañcā'ti. [PTS Page 474] [\q 474/] evaṃ vutte assajipunabbasukā bhikkhū te bhikkhū etadavocuṃ: 'mayaṃ kho āvuso sāyañceva bhuñjāma pāto ca divā ca vikāle. Te mayaṃ sāyañceva bhuñjamānā pāto ca divā ca vikāle appābādhatañca sañjānāma appātaṅkatañca lahuṭṭhānañca balañca phāsuvihārañca, te mayaṃ kiṃ sandiṭṭhikaṃ hitvā kālikaṃ anudhāvissāma, sāyañceva mayaṃ bhuñjissāma pāto ca divā ca vikāle'ti. Yato kho te bhikkhu nāsakkhiṃsu assajipunabbasuke bhikkhū saññāpetuṃ. Atha yena bhagavā tenupasaṅkamiṃsu. Upasaṅkamitvā bhagavantaṃ abhivādetvā ekamantaṃ nisīdiṃsu, ekamantaṃ nisinnā kho te bhikkhū bhagavantaṃ etadavocuṃ.

"Idha mayaṃ bhante yena assajipunabbasukā bhikkhū tenupasaṅkamimha. Upasaṅkamitvā assajipunabbasuke bhikkhū etadavocumha: 'bhagavā kho āvuso aññatreva rattibhojanā bhuñjati bhikkhusaṅgho ca, aññatra kho panāvuso rattibhojanā bhuñjamānā appābādhatañca sañjānanti appātaṅkatañca lahuṭṭhānañca balañca phāsuvihārañca. Etha tumhepi āvuso aññatreva rattibhojanā bhuñjatha, aññatra kho panāvuso tumhepi rattibhojanā bhuñjamānā appābādhatañca sañjānissatha, appātaṅkatañca lahuṭṭhānañca balañca phāsuvihārañcā'ti. Evaṃ vutte bhante assajipunabbasukā bhikkhū amhe etadavocuṃ: 'mayaṃ kho āvuso sāyañceva bhuñjāma pāto ca divā ca vikāle. Te mayaṃ sāyañceva bhuñjamānā pāto ca divā ca vikāle appābādhatañca sañjānāma appātaṅkatañca lahuṭṭhānañca balañca phāsuvihārañca, te mayaṃ kiṃ sandiṭṭhikaṃ hitvā kālikaṃ anudhāvissāma, sāyañceva mayaṃ bhuñjissāma pāto ca divā ca vikāle'ti. Yato kho mayaṃ bhante nāsakkhimha assajipunabbasuke bhikkhū saññapetuṃ. Atha mayaṃ etamatthaṃ bhagavato ārocemā"ti.

[BJT Page 238] [\x 238/]

Atha kho bhagavā aññataraṃ bhikkhuṃ āmantesi: ehi tvaṃ bhikkhu mama vacanena assajipunabbasuke bhikkhū āmantehi, satthāyasmante āmantetī'ti. Evambhanteti kho so bhikkhu bhagavato paṭissutvā yena assajipunabbasukā bhikkhū tenupasaṅkami. Upasaṅkamitvā assajipunabbasuke bhikkhū etadavoca: 'satthāyasmante āmantetī'ti. Evamāvusoti kho assajipunabbasukā bhikkhū tassa bhikkhuno paṭissutvā yena bhagavā tenupasaṅkamiṃsu. Upasaṅkamitvā bhagavantaṃ abhivādetvā ekamantaṃ nisīdiṃsu. Ekamantaṃ nisinne kho assajipunabbasuke bhikkhū bhagavā etadavoca,

'Saccaṃ kira bhakkhave sambahulā bhikkhū tumhe upasaṅkamitvā etadavocuṃ: bhagavā kho āvuso aññatreva rattibhojanā bhuñjati bhikkhusaṅgho ca. Aññatra kho panāvuso rattibhojanā bhuñjamānā appabādhatañca sañjānanti appātaṅkatañca lahuṭṭhānañca balañca phāsuvihārañca, etha tumhepi āvuso aññatreva rattibhojanā bhuñjatha, aññatra kho panāvuso tumhepi rattibhojanā bhuñjamānā [PTS Page 475] [\q 475/] appābādhatañca sañjānissatha appātaṅkatañca lahuṭṭhānañca balañca phāsuvihārañcā'ti. Evaṃ vutte kira bhikkhave tumhe te bhikkhū evaṃ avacuttha: 'mayaṃ kho āvuso sāyañceva bhuñjāma pāto ca divā ca vikāle, te mayaṃ sāyañceva bhuñjamānā pāto ca divā ca vikāle, appabādhatañca sañjānāma appataṅkatañca lahuṭṭhānañca balañca phāsuvihārañca, te mayaṃ kiṃ sandiṭṭhikaṃ hitvā kālikaṃ anudhāvissāma, sāyañceva mayaṃ bhuñjissāma pāto ca divā ca vikāle'ti.Evambhante.

Kinnu me tumhe bhikkhave evaṃ dhammaṃ desitaṃ ājānātha. Yaṃ kiñcāyaṃ purisapuggalo paṭisaṃvedeti sukhaṃ vā dukkhaṃ vā adukkhamasukhaṃ vā, tassa akusalā dhammā parihāyanti, kusalā dhammā abhivaḍḍhantī'ti. No'hetaṃ bhante. Nanu me tumhe bhikkhave evaṃ dhammaṃ desitaṃ ājānātha, 'idhekaccassa evarūpaṃ sukhaṃ vedanaṃ vediyato1 akusalā dhammā abhivaḍḍhanti. Kusalā dhammā parihāyanti. Idha panekaccassa evarūpaṃ sukhaṃ vedanaṃ vediyato1 akusalā dhammā parihāyanti. Kusalā dhammā abhivaḍḍhanti. Idhekaccassa evarūpaṃ dukkhaṃ vedanaṃ vediyato1 akusalā dhammā abhivaḍḍhanti. Kusalā dhammā parihāyanti. Idhapanekaccassa evarūpaṃ dukkhaṃ vedanaṃ vediyato akusalā dhammā parihāyanti. Kusalā dhammā abhivaḍḍhanti. Idhekaccassa evarūpaṃ adukkhamasukhaṃ vedanaṃ vediyato akusalā dhammā abhivaḍḍhanti, kusalā dhammā parihāyanti. Idha panekaccassa evarūpaṃ adukkhamasukhaṃ vedanaṃ vediyato akusalā dhammā parihāyanti. Kusalā dhammā abhivaḍḍhantīti evambhante.

--------------------------

1.Vedayato- machasaṃ, syā.

[BJT Page 240] [\x 240/]

Sādhu bhikkhave mayā'cetaṃ bhikkhave aññātaṃ abhavissa adiṭṭhaṃ aviditaṃ asacchikataṃ aphassitaṃ paññāya: idhekaccassa evarūpaṃ sukhaṃ vedanaṃ vediyato akusalā dhammā abhivaḍḍhanti. Kusalā dhammā parihāyantīti. Evamahaṃ ajānanto'evarūpaṃ sukhaṃ vedanaṃ pajahathā'ti vadeyyaṃ, api nu me etaṃ bhikkhave patirūpaṃ abhavissā'ti. No hetaṃ bhante, yasmā ca kho etaṃ bhikkhave mayā ñātaṃ diṭṭhaṃ viditaṃ sacchikataṃ phassitaṃ paññāya, 'idhekaccassa evarūpaṃ sukhaṃ vedanaṃ vediyato akusalā [PTS Page 476] [\q 476/] dhammā abhivaḍḍhanti, kusalā dhammā parihāyantī'ti. Tasmāhaṃ 'evarūpaṃ sukhaṃ vedanaṃ pajahathā'ti vadāmi.

Mayā'cetaṃ bhikkhave aññātaṃ abhavissa adiṭṭhaṃ aviditaṃ asacchikataṃ aphassitaṃ paññāya: 'idhekaccassa evarūpaṃ sukhaṃ vedanaṃ vediyato akusalā dhammā parihāyanti, kusalā dhammā abhivaḍḍhantī'ti. Evamahaṃ ajānanto 'evarūpaṃ sukhaṃ vedanaṃ upasampajja viharathā'ti. Vadeyyaṃ. Api nu me etaṃ bhikkhave patirūpaṃ abhavissāti. No hetaṃ bhante. 'Yasmā ca kho etaṃ bhikkhave mayā ñātaṃ diṭṭhaṃ viditaṃ sacchikataṃ phassitaṃ paññāya 'idhekaccassa evarūpaṃ sukhaṃ vedanaṃ vediyato akusalā dhammā parihāyanti, kusalā dhammā abhivaḍḍhantī'ti. Tasmāhaṃ evarūpaṃ sukhaṃ vedanaṃ upasampajja viharathā'ti vadāmi.

Mayā'cetaṃ bhikkhave aññātaṃ abhavissa adiṭṭhaṃ aviditaṃ asacchikataṃ aphassitaṃ paññāya: 'idhekaccassa evarūpaṃ dukkhaṃ vedanaṃ vediyato akusalā dhammā abhivaḍḍhanti, kusalā dhammā parihāntī'ti. Evamahaṃ ajānanto 'evarūpaṃ dukkhaṃ vedanaṃ pajahathā'ti vadeyyaṃ. Api nu me etaṃ bhikkhave patirūpaṃ abhavissāti. No hetaṃ bhante. 'Yasmā ca kho etaṃ bhikkhave mayā ñātaṃ diṭṭhaṃ viditaṃ sacchikataṃ phassitaṃ paññāya 'idhekaccassa evarūpaṃ dukkhaṃ vedanaṃ vediyato akusalā dhammā abhivaḍḍhanti, kusalā dhammā parihāyantī'ti. Tasmāhaṃ evarūpaṃ dukkhaṃ vedanaṃ pajahathāti vadāmi.

Mayā'cetaṃ bhikkhave aññātaṃ abhavissa adiṭṭhaṃ aviditaṃ asacchikataṃ aphassitaṃ paññāya: 'idhekaccassa evarūpaṃ dukkhaṃ vedanaṃ vediyato akusalā dhammā parihāyanti, kusalā dhammā abhivaḍḍhantī'ti. Evamahaṃ ajānanto 'evarūpaṃ dukkhaṃ vedanaṃ upasampajja viharathā'ti. Vadeyyaṃ.'Api nu me etaṃ bhikkhave patirūpaṃ abhavissā'ti. No hetambhante. 'Yasmā ca kho etaṃ bhikkhave mayā ñātaṃ diṭṭhaṃ viditaṃ sacchikataṃ phassitaṃ paññāya 'idhekaccassa evarūpaṃ dukkhaṃ vedanaṃ vediyato akusalā dhammā parihāyanti, kusalā dhammā abhivaḍḍhantī'ti. Tasmāhaṃ evarūpaṃ dukkhaṃ vedanaṃ upasampajja viharathā'ti vadāmi.

Mayā'cetaṃ bhikkhave aññātaṃ abhavissa adiṭṭhaṃ aviditaṃ asacchikataṃ aphassitaṃ paññāya: 'idhekaccassa evarūpaṃ adukkhamasukhaṃ vedanaṃ vediyato akusalā dhammā abhivaḍḍhayanti, kusalā dhammā parihāyantī'ti. Evamahaṃ ajānanto 'evarūpaṃ adukkhamasukhaṃ vedanaṃ pajahathā'ti vadeyyaṃ. 'Api nu me etaṃ bhikkhave patirūpaṃ abhavissā'ti. No hetambhante. 'Yasmā ca kho etaṃ bhikkhave mayā ñātaṃ diṭṭhaṃ viditaṃ sacchikataṃ phassitaṃ paññāya 'idhekaccassa evarūpaṃ adukkhamasukhaṃ vedanaṃ vediyato akusalā dhammā abhivaḍḍhanti, kusalā dhammā parihāyantī'ti. Tasmāhaṃ evarūpaṃ adukkhamasukhaṃ vedanaṃ pajahathā'ti vadāmi

[BJT Page 242] [\x 242/]

Mayā'cetaṃ bhikkhave aññātaṃ abhavissa adiṭṭhaṃ aviditaṃ asacchikataṃ aphassitaṃ paññāya: 'idhekaccassa evarūpaṃ adukkhamasukhaṃ vedanaṃ vediyato akusalā dhammā parihāyanti, kusalā dhammā abhivaḍḍhayantī'ti. Evamahaṃ ajānanto'evarūpaṃ adukkhamasukhaṃ vedanaṃ upasampajja viharathā'ti vadeyyaṃ. 'Api nu me etaṃ bhikkhave patirūpaṃ abhavissāti. No hetaṃ bhante. 'Yasmā ca kho etaṃ bhikkhave mayā ñātaṃ diṭṭhaṃ viditaṃ sacchikataṃ phassitaṃ paññāya 'idhekaccassa evarūpaṃ adukkhamasukhaṃ vedanaṃ vediyato akusalā dhammā parihāyanti, kusalā dhammā abhivaḍḍhantī'ti. Tasmāhaṃ evarūpaṃ [PTS Page 477] [\q 477/] adukkhamasukhaṃ vedanaṃ upasampajja viharathā'ti vadāmi

Nāhaṃ bhikkhave sabbesaṃyeva bhikkhūnaṃ appamādena karaṇīyanti vadāmi. Naṃ panāhaṃ bhikkhave sabbesaṃyeva bhikkhūnaṃ nāppamādena karaṇīyanti vadāmi. Ye te bhikkhave bhikkhū arahanto khīṇāsavā vusitavanto katakaraṇīyā ohitabhārā anuppattasadatthā parikkhīṇabhavasaññojanā sammadaññā vimuttā. Tathārūpānāhaṃ bhikkhave bhikkhūnaṃ nāppamādena karaṇīyanti vadāmi. Taṃ kissa hetu: kataṃ tesaṃ appamādena abhabbā te pamajjituṃ,

Ye ca kho te bhikkhave bhikkhū sekkhā appattamānasā anuttaraṃ yogakkhemaṃ patthayamānā viharanti. Tathārūpānāhaṃ bhikkhave bhikkhūnaṃ appamādena karaṇīya'nti vadāmi. Taṃ kissa hetu: appevanāmime āyasmanto anulomikāni senāsanāni paṭisevamānā kalyāṇamitte bhajamānā indriyāni samannānayamānā yassatthāya kulaputtā sammadeva agārasmā anagāriyaṃ pabbajanti, tadanuttaraṃ brahmacariyapariyosānaṃ diṭṭheva dhamme sayaṃ abhiññā sacchikatvā upasampajja vihareyyu'nti. Imaṃ kho ahaṃ bhikkhave imesaṃ bhikkhūnaṃ appamādaphalaṃ sampassamāno appamādena karaṇīyanti vadāmi.

Sattime bhikkhave puggalā santo saṃvijjamānā lokasmiṃ. Katame satta: ubhatobhāgavimutto paññāvimutto kāyasakkhī diṭṭhappatto1 saddhāvimutto dhammānusārī saddhānusārī.

Katamo ca bhikkhave puggalo ubhatobhāgavimutto: idha bhikkhave ekacco puggalo ye te santā vimokkhā atikkamma rūpe āruppā te kāyena phassitvā2 viharati, paññāya cassa disvā āsavā parikkhīṇā honti. Ayaṃ vuccati bhikkhave puggalo ubhatobhāgavimutto. Imassa kho ahaṃ bhikkhave bhikkhuno na appamādena karaṇīyanti vadāmi. Taṃ kissa hetu: kataṃ tassa appamādena abhabbo so pamajjituṃ.

--------------------------

1.Diṭṭhippatto-sīmu, machasaṃ,syā 2. Pusitvā-sīmu, machasaṃ,syā.

[BJT Page 244] [\x 244/]

Katamo ca bhikkhave puggalo paññāvimutto: idha bhikkhave ekacco puggalo ye te santā vimokkhā atikkamma rūpe āruppā te kāyena phassitvā1 viharati, paññāya cassa disvā āsavā parikkhīṇā honti. Ayaṃ vuccati bhikkhave [PTS Page 478] [\q 478/] puggalo paññāvimutto. Imassa pi kho ahaṃ bhikkhave bhikkhuno na appamādena karaṇīyanti vadāmi. Taṃ kissa hetu: kataṃ tassa appamādena abhabbo so pamajjituṃ.

Katamo ca bhikkhave puggalo kāyasakkhī: idha bhikkhave ekacco puggalo ye te santā vimokkhā atikkamma rūpe āruppā te kāyena phassitvā1 viharati, paññāya cassa disvā ekacce āsavā parikkhīṇā honti. Ayaṃ vuccati bhikkhave puggalo kāyasakkhi. Imassa kho ahaṃ bhikkhave bhikkhuno appamādena

Karaṇīyanti vadāmi. Taṃ kissa hetu: appevanāma ayamāyasmā anulomikāni senāsanāni paṭisevamāno kalyāṇamitte bhajamāno indriyāni samannānayamāno yassatthāya kulaputtā sammadeva agārasmā anagāriyaṃ pabbajanti, tadanuttaraṃ brahmacariyapariyosānaṃ diṭṭheva dhamme sayaṃ abhiññā sacchikatvā upasampajja vihareyyāti. Imaṃ kho ahaṃ bhikkhave imassa bhikkhuno appamādaphalaṃ sampassamāno appamādena karaṇīyanti vadāmi.

Katamo ca bhikkhave puggalo diṭṭhappatto: idha bhikkhave ekacco puggalo ye te santā vimokkhā atikkamma rūpe āruppā te kāyena phassitvā1 viharati, paññāya cassa disvā ekacce āsavā parikkhīṇā honti. Tathāgatappaveditā cassa dhammā paññāya vodiṭṭhā honti vocaritā. Ayaṃ vuccati bhikkhave puggalo diṭṭhappatto.2 Imassa pi kho ahaṃ bhikkhave bhikkhuno appamādena karaṇīyanti vadāmi. Taṃ kissa hetu: appevanāma ayamāyasmā anulomikāni senāsanāni paṭisevamāno kalyāṇamitte bhajamāno indriyāni samannānayamāno yassatthāya kulaputtā sammadeva agārasmā anagāriyaṃ pabbajanti, tadanuttaraṃ brahmacariyapariyosānaṃ diṭṭheva dhamme sayaṃ abhiññā sacchikatvā upasampajja vihareyyāti. Imaṃ kho ahaṃ bhikkhave imassa bhikkhuno appamādaphalaṃ sampassamāno appamādena karaṇīyanti vadāmi.

Katamo ca bhikkhave puggalo saddhāvimutto: idha bhikkhave ekacco puggalo ye te santā vimokkhā atikkamma rūpe āruppā te kāyena phassitvā1 viharati, paññāya cassa disvā ekacce āsavā parikkhīṇā honti. Tathāgate cassa saddhā niviṭṭhā hoti mūlajātā patiṭṭhitā. Ayaṃ vuccati bhikkhave puggalo saddhāvimutto. Imassa pi kho ahaṃ bhikkhave bhikkhuno appamādena karaṇīyanti vadāmi. Taṃ kissa hetu: appevanāma ayamāsasmā

------------------------

1.Phusitvā-sīmu, machasaṃ,syā 2. Diṭṭhippatto-sīmu, machasaṃ,syā.

[BJT Page 246] [\x 246/]

Anulomikāni [PTS Page 479] [\q 479/] senāsanāni paṭisevamāno kalyāṇamitte bhajamāno indriyāni samannānayamāno yassatthāya kulaputtā sammadeva agārasmā anagāriyaṃ pabbajanti, tadanuttaraṃ brahmacariyapariyosānaṃ diṭṭheva dhamme sayaṃ abhiññā sacchikatvā upasampajja vihareyyāti. Imaṃ kho ahaṃ bhikkhave imassa bhikkhuno appamādaphalaṃ sampassamāno appamādena karaṇīyanti vadāmi.

Katamo ca bhikkhave puggalo dhammānusārī: idha bhikkhave ekacco puggalo ye te santā vimokkhā atikkamma rūpe āruppā te kāyena phassitvā1 viharati, paññāya cassa disvā āsavā aparikkhīṇā1 honti, tathāgatappaveditā cassa dhammā paññāya mattaso nijjhānaṃ khamanti. Api cassa ime dhammā honti, seyyathīdaṃ: saddhindriyaṃ viriyindriyaṃ satindriyaṃ samādhindriyaṃ paññindriyaṃ. Ayaṃ vuccati bhikkhave puggalo dhammānusārī. Imassa pi kho ahaṃ bhikkhave bhikkhuno appamādena karaṇīyanti vadāmi. Taṃ kissa hetu: appevanāma ayamāyasmā anulomikāni senāsanāni paṭisevamāno kalyāṇamitte bhajamāno indriyāni samannānayamāno yassatthāya kulaputtā sammadeva agārasmā anagāriyaṃ pabbajanti, tadanuttaraṃ brahmacariyapariyosānaṃ diṭṭheva dhamme sayaṃ abhiññā sacchikatvā upasampajja vihareyyāti. Imaṃ kho ahaṃ bhikkhave imassa bhikkhuno appamādaphalaṃ sampassamāno appamādena karaṇīyanti vadāmi.

Katamo ca bhikkhave puggalo saddhānusārī: idha bhikkhave ekacco puggalo ye te santā vimokkhā atikkamma rūpe āruppā te kāyena phassitvā viharati, paññāya cassa disvā āsavā aparikkhīṇā1 honti. Tathāgate cassa saddhāmattaṃ hoti pemamattaṃ. Api cassa ime dhammā honti. Seyyathīdaṃ: saddhindriyaṃ viriyindriyaṃ satindriyaṃ samādhindriyaṃ paññindriyaṃ. Ayaṃ vuccati bhikkhave puggalo saddhānusārī. Imassa pi kho ahaṃ bhikkhave bhikkhuno na appamādena karaṇīyanti vadāmi. Taṃ kissa hetu: appevanāma ayamāyasmā anulomikāni senāsanāni paṭisevamāno kalyāṇamitte bhajamāno indriyāni samannānayamāno yassatthāya kulaputtā sammadeva agārasmā anagāriyaṃ pabbajanti, tadanuttaraṃ brahmacariyapariyosānaṃ diṭṭheva dhamme sayaṃ abhiññā sacchikatvā upasampajja vihareyyāti. Imaṃ kho ahaṃ bhikkhave imassa bhikkhuno appamādaphalaṃ sampassamāno appamādena karaṇīyanti vadāmi.

Nāhaṃ bhikkhave ādikeneva aññārādhanaṃ vadāmi. Api ca bhikkhave anupubbasikkhā anupubbakiriyā anupubbapaṭipadā [PTS Page 480] [\q 480/] aññārādhanā hoti.

------------------------

1. Ekacce āsavā parikkhīṇā- machasaṃ,syā.

[BJT Page 248] [\x 248/]

Kathañca bhikkhave anupubbasikkhā anupubbakiriyā anupubbapaṭipadā aññārādhanā hoti: idha bhikkhave saddhājāto upasaṅkamati, upasaṅkamanto payirupāsati, payirupāsanto sotaṃ odahati, ohitasoto1 dhammaṃ suṇāti, sutvā dhammaṃ dhāreti, dhatānaṃ dhammānaṃ atthaṃ upaparikkhati, atthaṃ upaparikkhato dhammā nijjhānaṃ khamanti, dhammanijjhānakkhantiyā sati chando jāyati, chandajāto ussahati, ussahitvā2 tuleti, tulayitvā padahati, pahitatto3 samāno kāyena ceva paramaṃ saccaṃ sacchikaroti, paññāya ca naṃ paṭivijjha4 passati.

Sāpi nāma bhikkhave saddhā nāhosi. Tampi nāma bhikkhave upasaṅkamanaṃ nāhosi. Sāpi nāma bhikkhave payirupāsanā nāhosi. Tampi nāma bhikkhave sotāvadhānaṃ nāhosi. Tampi nāma bhikkhave dhammasavanaṃ nāhosi. Sāpi nāma5 bhikkhave dhammadhāraṇā nāhosi. Sāpi nāma bhikkhave atthūpaparikkhā nāhosi. Sāpi nāma bhikkhave dhammanijjhānakkhanti nāhosi. Sopi nāma bhikkhave chando nāhosi. Sopi nāma bhikkhave ussāho nāhosi. Sāpi nāma bhikkhave tulanā nāhosi. Tampi nāma bhikkhave padhānaṃ nāhosi. Vippaṭipannā'ttha bhikkhave. Micchāpaṭipannā'ttha bhikkhave. Kīvadūrevime bhikkhave moghapurisā apakkantā imasmā dhammavinayā,

Atthi bhikkhave catuppadaṃ veyyākaraṇaṃ yassuddiṭṭhassa viññū puriso na cirasseva paññāyatthaṃ ājāneyya. Uddisissāmi vo bhikkhave. Ājānissatha metanti. Ke ca mayaṃ bhante, ke ca dhammassa aññātāroti. Yopi so bhikkhave satthā āmisagaru āmisadāyādo āmisehi saṃsaṭṭho viharati, tassapayaṃ evarūpī paṇopaṇaviyā na upeti. Evañca no assa, atha naṃ kareyyāma. Na ca no evamassa, na naṃ kareyyāmāti. Kimpana bhikkhave yaṃ tathāgato sabbaso āmisehi visaṃsaṭṭho viharati. Saddhassa bhikkhave sāvakassa satthusāsane pariyogāya6 vattato ayamanudhammo hoti: satthā bhagavā, sāvako hamasmi. Jānāti bhagavā, nāhaṃ jānāmīti. Saddhassa bhikkhave sāvakassa satthusāsane [PTS Page 481] [\q 481/] pariyogāya vattato rumhaniyaṃ7 satthusāsanaṃ hoti ojavantaṃ. Saddhassa bhikkhave sāvakassa satthusāsane pariyogāya5 vattato ayamanudhammo hoti: ' kāmaṃ taco ca nahāru ca aṭṭhi ca avasissatu upasussatu sarīre maṃsalohitaṃ. Yaṃ taṃ purisatthāmena purisaviriyena purisaparakkamena pattabbaṃ, na taṃ apāpuṇitvā viriyassa satthānaṃ bhavissatī'ti. Saddhassa bhikkhave sāvakassa satthusāsane pariyogāya vattato dvinnaṃ phalānaṃ aññataraṃ phalaṃ pāṭikaṅkhaṃ: diṭṭheva dhamme aññā, sati vā upādisese anāgāmitāti.

-------------------------

1. Odahitasoto- sīmu. 2. Ussāhetvā-machasaṃ 3. Padahitatto - sīmu. 4. Ativijja- machasaṃ [PTS] 5. Tampināma-sīmu. 6. Pariyogāhiya-machasaṃ pariyogayha-syā. 7. Rūḷhanīyaṃ-machasaṃ,syā .

[BJT Page 250] [\x 250/]

Idamavoca bhagavā. Attamanā te bhikkhū bhagavato bhāsitaṃ abhinandunti.

Kīṭāgirisuttaṃ dasamaṃ.

Bhikkhuvaggo dutiyo

Tassa vaggassa uddānaṃ

Kuñjara rāhula sassata lokā māluṅkyaputto ca bhaddāli nāmo

Khuddadijātha sahampati yācaṃ nālaka raññikīṭāgirināmo.

**MAJJHIMA NIKĀYA II
*II. 2. 10. Kīṭāgirisuttaṃ*(70) Advice given at Kitagiri**

I heard thus. At one time, the Blessed One was touring Kashmire with a large community of bhikkhus. Then the Blessed One addressed, those bhikkhus: Bhikkhus, I refrain from food at night and experience few affictions, few illnesses, lightness, power, and a pleasant living. Come! Bhikkhus, you too refrain from food at night and experience few afflictions, few illnesses, lightness, power and a pleasant abiding. Those bhikkhus agreed. Then the Blessed One touring in stages arrived in a hamlet named Kitagiri in Kashmire. At that time a bhikkhu named Assaji-Punabbasuka was a resident of Kitagiri. Then many bhikkhus approached the bhikkhu Assaji-Punabbasuka and said thus: Friend, the Blessed One and the Community of bhikkhus refrain from food at night and experience few affictions, few illnesses, lightness, power, and a pleasant living. Come! Bhikkhu, you too, refrain from food at night and experience few afflictions, few illnesses, lightness, power and a pleasant abiding When this was said, the bhikkhu Assaji-punabbasuka said thus to those bhikkhus. Friends, we partake food in the evening, early in the morning, during the day and at untimely hours. Partaking in this manner we experience few afflictions, few illnesses, lightness, power and a pleasant abiding. Why should we, give up, what we, experience here and now, and go after, new experiences.

Those bhikkhus, not able to convince the bhikkhu Assaji-Punabbasuka, approached the Blessed One, worshipped, sat on a side and said to the Blessed One. Venerable sir, we approached the bhikkhu Assaji-Punabbasuka and said to him. Friend, the Blessed One and the Community of bhikkhus refrain from food at night and experience few affictions, few illnesses, lightness, power, and a pleasant living. Bhikkhu, you too, refrain from food at night and experience few afflictions, few illnesses, lightness, power and a pleasant abiding. When this was said, the bhikkhu Assaji-punabbasuka said thus to us. Friends, we partake food in the evening, early in the morning, during the day and at untimely hours. Partaking in this manner we experience few afflictions, few illnesses, lightness, power and a pleasant abiding. Why should we, give up, what we know here and now, and go for new experiences? Venerable sir, as we could not convince the bhikkhu Assaji-Punabbasukha, we came to inform this to the Blessed One. Then the Blessed One addressed a certain bhikkhu. Come bhikkhu! tell the bhikkhu Assaji-Punabbasuka in my words, the Teacher wants you. That bhikkhu agreed, approached the bhikkhu Assaji-Punabbasuka and said to him: The Teacher wants you. The bhikkhu Assaji-Punabbasuka agreeing approached the Blessed One, worshipped and sat on a side. Then the Blessed One addressed the bhikkhu Assaji-punabbasuka: Bhikkhu, is it true that, many bhikkhus approached you and said to you, friend, the Blessed One and the Community of bhikkhus refrain from food at night and experience few affictions, few illnesses, lightness, power, and a pleasant living? . Come! Bhikkhu, you too, refrain from food at night and experience few afflictions, few illnesses, lightness, power and a pleasant abiding. Did you say this to them. Friends, we partake food in the evening, early in the morning, during the day and at untimely hours. Partaking in this manner we know of few afflictions, few illnesses, lightness, power and a pleasant abiding. Why should I, give up, what I know, here and now, to seek new experiences? I said, Venerable sir.

Bhikkhus, do you know this Teaching preached by me: Whatever this person feels, pleasant, unpleasant, or neither unpleasant-nor pleasant feelings, to him, there is decrease and increase of merit and demerit. No, venerable sir, we do not know this. Bhikkhus, do you not know this Teaching preached by me: When a person experiences a certain kind of pleasant feeling, demerit increases, merit decreases. When a person experiences a certain kind of pleasant feeling, demerit decreases, merit increases. When a person experiences a certain kind of unpleasant feeling, demerit increases, merit decreases. When a person experiences a certain kind of unpleasant feeling, demerit decreases, merit increases. When a person experiences a certain kind of neither unpleasant-nor-pleasant feeling, demerit increases, merit decreases. When a person experiences a certain kind of neither-unpleasant-nor-pleasant feeling, demerit decreases, merit increases? Yes, we know it, venerable sir.

Bhikkhus, good, that you have understood it. If I had not known, seen, experienced, realized it and mentally touched, a certain person experiencing, such a kind of pleasant feeling increase demerit and decrease merit. Not knowing it, I would have said, give up that kind of pleasant feeling. Yet to a person like me, is it suitable to do. so? No, venerable sir. Since, bhikkhus, I have known, seen, experienced, realized and mentally touched a certain person experiencing such a kind of pleasant feeling, increase demerit and decrease merit I say dispel such a kind of pleasant feeling. If I had not known, seen, experienced, realized it and mentally touched, a certain person experiencing such a kind of pleasant feeling decrease demerit and increase meit. Not knowing I would have said, pursue that kind of pleasant feeling. Yet to a person like me, is it suitable? No, venerable sir. Since, bhikkhus, I have known, seen, experienced, realized and mentally touched, a certain person experiencing such a kind of pleasant feeling decrease demerit and increase merit, I say pursue such a kind of pleasant feeling.

If I had not known, seen, experienced, realized and mentally touched, a certain person experiencing such a kind of unpleasant feeling increase demerit and decrease merit...re...acertain person experiencing such a kind of unpleasant feeling decrease demerit and increases merit...re...a certain person experiencing such a kind of neither unpleasant-nor-pleasant-feeling, increase demerit and decrease merit. Not knowing it, I would have said, give up that kind of neither-unpleasant-nor pleasant feeling. Yet to a person like me, is it suitable? No, venerable sir. Since, bhikkhus, I have known, seen, experienced, realized and mentally touched, a certain person experiencing such a kind of neither unpleasant nor- pleasant feeling increase demerit and decrease merit, I say dispel such a kind of neither unpleasant nor pleasant feeling. If I had not known, seen, experienced, realized it and mentally touched, a certain person experiencing such a kind of neither unpleasant nor pleasant feeling, decrease demerit andincrease merit, I would have said, pursue that kind of neither unpleasant nor pleasant feeling. Yet to a person like me is it suitable to do? No, venerable sir. Since, bhikkhus, I have known, seen, experienced, realized and mentally touched, a certain person experiencing such a kind of neither unpleasant nor pleasant feeling decreasedemerit and increase merit, I say pursue such a kind of pleasant feeling.

Bhikkhus, I do not ask all bhikkhus to abide diligently, neither do I ask all bhikkhus not to abide diligently. To those bhikkhus, who are perfect, have destroyed desires, lived the holy life, done what should be done, have put down the weight, have come to the highest good, have destroyed the bonds 'to be' and released rightfully knowing, to such bhikkhus, I do not say abide diligently. What is the reason: They have done what should be done diligently, and it is impossible that they should be negligent. Bhikkhus, as for those trainers, not yet attained to the highest end of the yoke, and abiding aiming it, to such bhikkhus, I say, abide diligently. What is the reason? These venerable ones partaking of suitable dwellings, associating good friends, and with the development of their faculties, for whatever reason these sons of clansmen left the household and became homeless, that highest end of the holy life, they here and now realize and abide. Bhikkhus, seeing these results of diligence I tell these bhikkhusto be diligent.

Bhikkhus, there are seven persons evident in the world: What seven: those released both ways, released through wisdom, those with body witness, those come to righteousness of view, those released in faith, those living according to the Teaching, and those living according to faith.

Bhikkhus, who is released both ways: Here bhikkhus, a certain person experiences with the body those immaterial attainments and also with wisdom sees the destruction of desires.

To such a one is said released both ways. Bhikkhus, to such ones, I do not say abide diligently. What is the reason: They have done it diligently and it is impossible that they be negligent.

Bhikkhus, who is released through wisdom? Bhikkhus, a certain person does not . experience those immaterial attainments with the body, seeing with wisdom his desires are destroyed. To this one is said, released through wisdom. Bhikkhus, to such a one too I do not say, abide diligently. What is the reason: They have done it diligently and it is impossible that they be negligent.

Bhikkhus, who witneses with the body? Bhikkhus, a certain person experiencesthose immaterial attainments with the body. Some of his desires are destroyed seeing with wisdom Bhikkhus, this one is a body witness. To this bhikkhu I say, there is something to be done diligently. What is the reason? Bhikkhus, this one partaking of suitable dwellings, associating good friends, and with the development of his faculties, for whatever reason this sonof a clansman left the household and became homeless, that highest end of the holy life, he here and now, wouldrealize and abide. Seeing these results of diligence I tellthisbhikkhu, to be diligent.

Bhikkhus, who is the person come to righteousness of view. Here, bhikkhus, a certain person does not . experience those immaterial attainments with the body, seeing with wisdom some of his desires are destroyed. Through wisdom he sees the Teaching of the Thus Gone One, and behaves accordingly. Bhikkhus, to this one is said, come to righteousness of view To this bhikkhu I say, there is something to be done diligently. What is the reason? Bhikkhus, this one partaking of suitable dwellings, associating good friends, and with the development of his faculties, for whatever reason this sonof a clansman left the household and became homeless, that highest end of the holy life, he here and now, wouldrealize and abide. Seeing these good results of diligence I tell this bhikkhu to be diligent.

Bhikkhus, who is the person released in faith?: Here, bhikkhus, a certain person does not experiencethose immaterial attainments with the body, and seeing with wisdom some of his desires are destroyed. His faith in the Thus Gone One is thoroughly established, well rooted. To this one is said, released in faith. To this bhikkhu too I say, there is something to be done diligently. What is the reason: Bhikkhus, this one partaking of suitable dwellings, associating good friends, and with the development of his faculties, for whatever reason this clansman left the household and became homeless, that highest end of the holy life, he here and now, will realize and abide. Seeing these good results of diligence I tell this bhikkhu to be diligent.

Bhikkhus, who is the person living according to the Teaching. : Here, bhikkhus, a certain person does not experience those immaterial attainments with the body. His desires are not destroyed, not seeing with wisdom. He is convinced in the Teaching of the Thus Gone One to a certain extent, by wisely thinking about it. Yet to him there are the faculties of faith, effort, mindfulness, concentration and wisdom. To this one is said, living according to the Teaching. To this bhikkhu too I say, there is something to be done diligently. What is the reason: Bhikkhus, this one partaking of suitable dwellings, associating good friends, and with the development of his faculties, for whatever reason this clansman left the household and became homeless, that highest end of the holy life, he here and now, would realize and abide. Seeing these good results for diligence I tell this bhikkhu to be diligent.

Bhikkhus, who is the person living according to faith? Bhikkhus, a certain person does not experience the immaterial attainments with the body. His desires are not destroyed, not seeing with wisdom. He has some faith and love for the Thus Gone One Yet to him there are the faculties of faith, effort, mindfulness, concentration and wisdomTo this one is said, living according to faith. To this bhikkhu too I say, there is something to be done diligently. What is the reason: Bhikkhus, this one partaking of suitable dwellings, associating good friends, and with the development of his faculties, for whatever reason this clansman left the household and became homeless, that highest end of the holy life, he here and now, will realize. Seeing these good results for diligence, I tell this bhikkhu to be diligent.

Bhikkhus, I do not convince of perfection right at the beginning. It is a gradual ascent, with gradual training, action, and follow up. Bhikkhus, how does the conviction of perfection come about with gradual training, action, and follow up? Bhikkhus, someone approaches when faith is born. Then he associates. Associating lends ear. Listening bears the Teaching. Bearing the Teaching examines the meanings. Examining the meanings some conviction arises. Pleased with that conviction an interest arises for the Teaching. With interest there is effort. With that effort there is weighing. Weighing realises the highest truth with the body, and wisely penetrates it. Bhikkhus, without faith, there is no approach. Without the approach there is no association. Without association there is no lending ear. Without lending ear there is no listening, Without listenning, the Teaching is not borne in the mind. Without bearing the Teaching there is no examining of the meanings. Without an examination, there is no conviction. Without a conviction, there is no interest. Without an interest, there is no effort. Without effort there is no discrimination. Without discrimination there is no weighing. Without weighing, there is no confrontration. Those gone astray are on the wrong track. Bhikkhus, the foolish, not interested in this dispensation of Teaching, how far have they strayed?

Bhikkhus, there is an explanation given with four linesṭhrough which the wise learn the meaning quickly. Explain it bhikkhus, do you know it? Venerable sir, do weknow the Teaching to explain? Bhikkhus, if a Teacher honours materiality, leaves a material heritage, abides engrossed in materiality, these doings and non-doings, occur to him. That is to us, we will do that, that is not to us, we will not do that. Bhikkhus, if the Thus Gone One abides unyoked from all materiality, to the disciple with faith in the dispensation of the Teacher penetration into the Teaching is lawfulness. The Blessed One is the Teacher, we, his disciples. The Blessed One knows, we do not know. Bhikkhus, to the disciple with faith in the dispensation of the Teacher the essentials for growth and penetration into the Teaching are there. Bhikkhus, to the disciple with faith in the dispensation of the Teacher, the penetration into the teaching is lawful. Let skin, nerves, and bones remain, let the body dry up with the flesh and blood, that which should be attained by manly strength, manly effort and manly power should be attained. I will not give up the inner effort without attaining it. Bhikkhus, to the disciples with faith in the dispensaton of the Teacher yoked to penetration, one of these results could be expected. Either perfection here and now, or with susbstratum remaining mindfulness of not returning.

The Blessed One said thus and those bhikkhus delighted in the words of the Blessed One.